

모발 이식으로 고민 해결? ... 지속적 치료·관리 동반돼야



건강 바로 알기 탈모

나용필모피부과 나용필 원장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과 노화를 거치듯 모발 역시 이 과정을 반복한다. 모발은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굵은 털인 경모(勁毛)로 변화하는데, 탈모 환자의 경우 일정 시기가 지나서 모발이 가늘고 얇은 솜털처럼 변하는 연모(軟毛)화 경향을 보인다. 유전적 요인과 각종 질병, 스트레스 등에 의해 모주기가 변하고 연모화가 빨라지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대머리로 알고 있는 남성형 탈모 역시 유전적 요인과 남성호르몬, 나이에 의해 연모화가 시작되면서 탈모 부위가 넓어지며, 이 연모화 증상은 앞머리와 정수리 위주로 나타난다.

남성형 탈모는 식생활의 서구화 및 환경호르몬의 노출, 스트레스 등의 외부 영향으로 발병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에 따라 탈모 치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나용필모피부과의원 나용필 원장은 "탈모가 의심될 경우 화장품이나 민간요법 등 비과학적인 치료 방법을 쓰기 보다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탈모 유형과 원인 다양해 진행 정도 예측해 치료 필수
이식 1년 지나야 자연스러워 ... 장기적으로 결과 지켜보길

약물 치료나 모발 이식 등의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며 "약물 치료는 모발성장을 촉진하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 있으며, 중기 이상이거나 약물치료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시 모발 이식이 권장된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수술 치료인 모발 이식은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남성형 탈모 치료 방법으로 꼽히며,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탈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뒷머리의 모낭을 탈모 부위에 옮겨 심는 방식으로, 탈모 부위에서도 기존의 성질을 그대로 보존해 평생 빠지지 않는 장점을 가진다. 다만 모발 이식만으로 탈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모발 이식에도 한계가 있으며, 이식 후 모발 및 두피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하다. 탈모 환자의 올바른 치료를 돕기 위해 모발 이식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을 소개한다.

◇모발 이식은 탈모 증상에 상관없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아니다. 원형 탈모나 심한 피부염에 의한 탈모는 모발 이식으로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 탈모는

유형과 원인이 다양해 치료 또한 그에 따라 다르게 이뤄진다. 모발 이식이 권장되는 대다수 탈모 환자들은 남성형 탈모 환자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증상을 판단하기 보다는 병원에 방문해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을 통해 모발 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탈모 진행상태 및 향후 진행정도를 예측해 치료를 계획하고,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모발 이식을 진행할 수 있다.

◇모발이식 한 번 하면 더 이상의 탈모 걱정은 없다? 이식한 모발은 채취한 부위의 고유한 성질을 유지해 탈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발 이식을 받지 않은 원래의 모발은 탈모가 계속 진행되므로 모발 이식을 받았더라도 기존 모발의 유지를 위해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모발 이식,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탈모 진행 초기에는 모발 이식보다 약물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선부르게 시술을 진행한 후 관리에 소홀하면 이식한 부위에만 모발이 남아 있고, 그 주



나용필 원장이 앞머리와 정수리 부위 탈모가 심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나용필모피부과 제공〉

변은 탈모가 진행돼 어색한 형태로 모발이 남을 수 있다. 따라서 탈모 진행 초기에는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나중에 탈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와 함께 탈모가 진행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적절한 양

을 이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발을 이식하면 바로 자라나나? 모발 이식을 하면 모발이 바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2주가량 시간이 지나면 털집이 휴지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빠진 모발이 다시 자라기 전까지는 이식하기 전 상태와 비슷해진다. 하지만 해당 시

기가 지나면 점차 굵고, 많은 모발이 자라나 1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진다. 조금하게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한번에 많이 심을수록 효과적이다? 1회 수술 시 이식하는 모발의 양은 보통 약 3-4000 정도이며, 탈모 진행 정도 및 이식 범위에 따라 이식할 양이 달라진다. 또한 평생 동안 이식할 수 있는 모발의 양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 꼭 필요한 양을 이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 이식하는 모발의 모낭은 살아있는 조직으로 외부에 오래 노출될수록 모발의 생존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이식하는 것보다 탈모 진행상태에 맞게 적절한 양을 이식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 탈모가 진행할 경우를 대비해 2차 수술시 필요한 모발의 양을 남겨놓는 것도 중요하다.

나용필 원장은 "모발 생착률은 모발이식 수술자 숙련도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따라서 수술자를 신중하게 선정하는 것이 좋다"면서 "탈모는 매우 느리지만 진행이 계속되므로 치료 효과를 고려해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advertorial)

위험 질환 치료받은 환아 부모 전남대어린이병원에 벽시계 기증



전남대어린이병원(병원장 국훈)에서 고위험 질환 치료를 받은 어린이의 부모가 감사의 뜻으로 병원에 80개의 벽시계를 기증해 화제다. 이 시계는 뇌수막염으로 치료를 받아 회복중인 어린이의 부모가 직접 만들어 전달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재경 호남향우들 "화순전남대병원 발전상에 금지"

23개 시·군 사무총장단 방문

500만명의 수도권 향우들을 아우르는 재경 광주·전남향우회의 23개 시·군사무총장(협의회장 박성남)들이 최근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정신)을 방문했다.

사무총장단은 수도권 대형병원들과 차별화된 화순전남대병원의 강점과 국제적 수준의 암치유역량, 진료·연구·교육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국내에서 유일한 화순백신 산업특구 현황과 병원의 중요한 역할 등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다. 대도시의 병원들

과는 달리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공해없는 주변환경과 첨단의료장비, 쾌적한 편의시설 등 암치유 인프라와 '입원환자 경험 의료서비스 평가'에서 전국 국립대병원 중 최고득점한 성과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박성남 회장은 "지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암특화병원으로 도약한 화순전남대병원의 발전상은 호남향우들 금지의 표상"이라며 "우수한 암치유역량은 물론

의·한 협진 시범사업 경진대회 정연한방병원, 장려상 수상

정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의·한 협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정연한방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의·한 협진 시범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지정된 기관 소속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 포상하고 사업기관 사기 진작과 의·한 협진 활성화 등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신종 감염병 대응 훈련 '실전처럼'



메르스 발생 가정 훈련 음압입원 병상 격리 치료

조선대병원(병원장 배학연)은 12일 오후 신종 감염병 발생 상황을 가정, 신속한 초동 조치 및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의 격리와 치료 등 감염병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광주시와 동구보건소와 함께 한 이번 '신종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은 과거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를 가정해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실시한 모의훈련은 ▲메르스 환자 발생 ▲환자 음압실 방문 대처 및 국가 지정 음압입원 치료병상 이송 ▲환자 격리 및 치료 ▲폐기물 처리 및 퇴원 등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눠 훈련이 실시됐다.

김진호 조선대병원 부원장은 "매해 실시하는 훈련을 통해 위급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해 대응능력을 높이자"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부동산 투자!
(주)오천과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선규 H.010-3605-5000